

이란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5

이란(Islamic Republic of Iran)

I. 일반개황

면적	1,648천 km ²	G D P	3,195억 달러(2008년)
인구	72.1백만 명(2008년)	1인당 GDP	4,431 달러(2008년)
정치체제	회교공화국(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Iranian Rial(IR)
대외정책	친아랍	환율(달러당)	9,429(2008년)

- 이란은 72.1백만명의 인구와 한반도의 7.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 풍부한 자원(세계 2위의 석유·천연가스 매장량)등의 성장 잠재력과 함께 반만년의 이슬람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중동의 정치·경제대국임.
- 2006년 1월, 나탄즈 핵 농축 시설 재가동으로 불거진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마찰은 세 차례(2006년 12월, 2007년 3월, 2008년 3월)에 걸친 UN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의결 및 미국·EU의 추가 제재로 이어졌으나, 평화적 핵 이용은 고유한 주권임을 주장하며 핵 개발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당분간 국제사회와의 마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외화소득원은 석유수출이며, 우리나라에게는 제3위의 원유 도입선이자 중동 지역의 주요 수출대상국이며, 우리나라는 이란의 제4위의 수출대상국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제성장률	5.1	4.7	5.8	7.8	6.5
재정수지/GDP	-3.6	-3.6	-7.2	-3.6	-3.7
소비자물가상승률	14.7	13.4	11.6	17.1	25.4

자료: IMF, EIU

□ '04년 이후 양호한 성장세 유지, 그러나 '09년부터 둔화 전망

- 2004-06년 이란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수출 증가, 농업·건설업 등 非석유부문의 점진적 성장,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평균 5%대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유지해왔음.
- 2007-08년에는 UN 안보리, 미국 및 EU의 제재 강화, 미국발 금융위기, 국제유가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교역 및 투자 위축이 우려되기도 하였으나,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은 평균 7.2%를 기록함.
- 그러나 2009-10년에는 OPEC의 감산결정(150만 b/d) 및 국제유가 하락세의 영향으로 석유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세계 경기침체 악화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은 각각 2.4%, 3.8%로 둔화될 전망이다.

□ 재정수지 적자기조

- 재정수지는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와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해 재정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만성적 적자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동국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그동안 GDP 대비 평균 3.6%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06년에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 확대의 영향을 크게 받아 재정수지 적자폭이 GDP 대비 7.2%까지 확대된 바 있음.

- 2009-10년에도 국제유가 하락세의 타격을 받아 재정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각각 4.8%, 3.9%를 기록할 전망이다.

□ 인플레이 우려 고조

- 2004-06년 소비자물가는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에 따라 진정되는 추세를 보여 왔었으나, 최근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동성 확대, 부동산 및 식료품 가격 급등이 지속되면서 2008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25.4%를 기록하였음.
- 현 정부는 석유안정기금(Oil Stabilization Fund, OSF)의 자금인출 제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고인플레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UN 및 미국의 경제제재 등으로 인해 원재료 및 부품 수입이 원활하지 않고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뚜렷하여, 동국의 고인플레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 정책

[구조적 취약성]

□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

- 이란은 석유산업이 재정수입의 80%, 총 수출의 80-85%를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이 국가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

- 이란 정부는 이러한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를 탈피하고자 1990년부터 산업 다각화를 위한 '경제사회문화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4차 계획(2005.3~2010.3)을 시행 중임.
- 1997년 집권한 하타미 전 정부는 적극적인 개혁정책과 외교정책 추진을 통해 세계 각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 및 경제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2005년 강경 보수파인 아마디네자드(Ahmadinejad) 정부로의 정권교체 이후, 상기 개발계획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동국은 세계 2위의 석유 매장량(1,384억 배럴, '07년말 기준)과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981조 입방피트, '07년말 기준)을 보유하고 있음. 석유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매장량과 수출 규모가 막대하여 석유 산업이 지속적인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음.
- 최근에는 구리, 철광석, 석탄, 우라늄 등 광물자원의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광물자원의 개발 잠재력도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중앙아시아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

- 이란은 한반도의 7.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와 풍부한 천연자원, 약 7,200만명의 방대한 인구를 보유한 중동의 정치·경제대국이며, 최근 아프리카 중서부 기니만(Gulf of Guinea) 일대와 더불어 새로이 에너지 개발의 요충지로 관심을 받고 있는 카스피해 연안(Caspian Depression) 중앙아시아에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높은 성장 잠재력은 최근 핵 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갈등과 경제제재로 인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정책성과]

□ 부진한 산업다각화·민영화 정책 추진

- 동국은 그동안 막대한 오일머니 유입을 활용하여 석유화학 부분 및 기타 제조업 육성 등 산업기반의 다각화를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핵 개발을 둘러싼 서방과의 마찰과 지속되는 경제제재로 인해 효과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민영화 추진 또한 지지부진함. 정부는 그동안 매년 국영기업의 20%를 민영화하겠다는 정책을 펼쳐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음. 최근에는 국영통신회사인 Telecommunications Company of Iran (TCI)의 민영화 추진이 2010년으로 연기된 바 있음.

□ 무리한 보조금 정책 추진

- 현 아마디네자드(Ahmadinejad)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지지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에 대한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인위적으로 국가 통제 경제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향후 유가 하락의 장기화로 인해 재정수입이 악화되어 이 같은 정책 유지가 어려워질 경우,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존함.
- 휘발유, 밀가루 등 기초 생필품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급과 비대한 공공부분은 자원낭비 및 자원 분배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 관료주의, 사회에 만연된 부패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외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 부가가치세(VAT) 도입

- 이란 정부는 '08.9월, 부가가치세(VAT)제를 도입하여 조세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수입 증대를 통해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자 노력하였음.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동 조치가 고인플레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납부관행의 정립, 인력훈련 및 세부 규정마련이 불가피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참고>

부가가치세(VAT)제의 주요내용

1. 세율
 - 표준세율은 1.5%, 납부지연 시 매월 2%씩 가산
 - 단,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세율 적용: 담배 및 연초류(12%), 가솔린 및 항공기 연료(20%)
2. 과세대상
 -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거래
 - 면세대상 품목:
 - 미가공 농산품, 축산품, 비료, 육류, 설탕, 곡물, 우유
 - 인쇄용지, 정부기증품, 의약품, 금융서비스
 - 기타 임금관련 서비스, 수직 카펫, 대중교통, 연구, 축산, 방산용품 등
3. 납세대상
 - 재화 및 용역 공급액이 '07-08년도 연간 30억 리얄(약 32만 달러) 이상 또는 '08-09년도 상반기 중 12.5억 리얄(약 13만 달러) 이상인 사업자
4. 과세방법
 - 납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세액을 기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벌과금 부과

□ 제 5차(2010-2015) 국가발전계획 지침 수립

- 최근 이란 정부는 제 5차(2010-2015) 국가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발표하였음. 동 지침은 문화, 과학기술, 사회, 경제, 정치, 국방 및 안전 등 총 6개 분야의 4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평균 8%의 경제성장률 달성,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생산성 향상, 노동환경 개선 등의 목표를 담고 있음.

* 현재 제 4차 국가발전계획(2005-2009) 시행중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 상 수 지	1,442	16,637	20,402	34,081	13,342
경상수지 / GDP	0.9	8.8	9.2	11.9	4.2
상 품 수 지	5,653	21,281	26,035	40,819	24,528
수 출	43,852	64,366	76,055	97,401	91,774
수 입	38,199	43,085	50,020	56,582	67,246
외 환 보 유 액	32,959	45,459	58,459	82,059	96,559
총 외 채 잔 액	20,356	21,260	20,113	21,020	21,651
총외채잔액 / GDP	13.0	11.2	9.0	7.3	6.8
D . S . R .	4.5	3.7	3.1	2.3	2.8

자료: IMF, EIU, OECD

□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그러나 '09년 적자전환 예상

- 상품수지는 유가상승에 따른 석유수출 증가에 힘입어 2004년 57억 달러

에서 2008년 245억 달러로 네 배 이상 확대되었음.

- 이란의 수출구조('07년 기준): 석유·가스(83.9%), 석유화학(3.0%), 과일류(2.1%) 등
- 경상수지도 2004-08년 연평균 74%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한편, 2008년에는 국제유가 하락과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및 소득수지가 큰 폭으로 축소되고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총 GDP의 4.2%인 133억 달러로 축소됨.
- 이 같은 추세는 2009년에도 이어져,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는 각각 68억 달러, 17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상품수지: 260억 달러('06) → 408억 달러('07) → 245억 달러('08)
 - 소득수지: 35억 달러('06) → 46억 달러('07) → 19억 달러('08)
 - 서비스수지: -98억 달러('06) → -112억 달러('07) → -136억 달러('08)
 - 경상이전수지: 5억 달러('06) → 5억 달러('07) → 5억 달러('08)

[외채상환능력]

□ 외환보유액 증가세 뚜렷, 외채상환능력 양호

- 외환보유액은 원유수출 증대, 에너지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대폭적인 증가 등에 힘입어 최근 5년간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말에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966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FDI: 3.2억 달러('06) → 7.5억 달러('07) → 9.0억 달러('08)
- 총 외채규모는 최근 수년간 2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GDP의 지속적인 증대로 인해 2004년 13.0%에 달하던 GDP 대비 외채비중은 2008년에는 6.8%까지 감소하였음.

- D.S.R.도 5% 미만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대외 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GDP: 2,229억 달러('06) → 2,861억 달러('07) → 3,195억 달러('08)
 - 총 외채잔액/GDP: 9.0%('06) → 7.3%('07) → 6.8%('08)
 - 외채상환비율(D.S.R.): 3.1%('06) → 2.3%('07) → 2.8%('08)

III.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정치 안정]

□ '08.3월 제 8대 총선, 보수파 압승

- '08.3월 치러진 제 8대 총선 결과, 현 아마디네자드(Ahmadinejad) 정부의 보수파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음.
- 동 총선은 강경 보수파인 아마디네자드(Ahmadinejad) 대통령의 4년 임기 중 2년 반이 경과한 시점에서 치러진 만큼,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정책, 고인플레이 등 경제문제를 비롯한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중간평가의 의미를 지녔으나, 불공정 총선으로 인해 보수파가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됨(보수파 170석 vs. 개혁파 46석).
- 그러나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反아마디네자드 보수파 연대인 온건 보수파가 75석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어, 지난 제 7대 총선과는 달리 현 정부의 견제세력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09.6월 대선을 앞두고 정국 혼란 전망

- 오는 6.12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反정부 연대는 약 20%에

달하는 소비자물가, 정부의 부실한 재정운영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며, 오는 대선에서 정권을 재탈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최근에는 개혁파의 상징인 모하마드 하타미(Mohammad Khatami)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어, 현 이슬람 신정통치를 지지하는 보수 세력과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하는 개혁파 지지세력 간 정국 혼란이 예상됨.

<참고>

주요 선거 일지

- '89. 7월 온건보수파 하세미 라프산자니(Rafsanjani) 대통령 당선
- '93. 6월 라프산자니 대통령 재선
- '97. 5월 개혁파 모하마드 하타미(Khatami) 대통령 당선
- '98. 10월 국가지도자운영위원회 선거, 보수파 승리
- '99. 2월 지방의회선거, 개혁파 승리
- '00. 2월 제 6대 총선, 개혁파 승리
- '01. 6월 하타미대통령 재선
- '03. 2월 지방의회선거, 보수파 승리
- '04. 2월 제 7대 총선, 보수파 승리
- '05. 6월 강경보수파 마무드 아마디네자드(Ahmadinejad) 대통령 당선
- '06. 12월 국가지도자운영위원회·지방의회 선거, 온건보수파·개혁파 승리
- '08. 3월 제 8대 총선, 보수파 승리

[국제관계 - 핵 문제 동향 및 전망]

□ UN 안보리 및 미국·EU의 제재 지속

-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 UN 안보리는 3차례에 걸쳐 제재 결의('06.12.23, '07.3.24, '08.3.3)를 채택하였고, 미국 및 EU 일부 국가에서는

이와 별도로 자체적인 각종 경제·금융제재를 취하고 있음.

<표 3> 對 이란 제재내용 및 경과

일 자	주요 내용
· '06.01.10	이란, 핵 활동 재개 결정
· '06.03.29	UN 안보리, 이란 핵문제 관련 의장 성명 채택
· '06.04.11	이란, 핵 기술 보유국 공식 발표
· '06.07.31	UN 안보리, 이란 핵문제 결의안 채택 · 8.31까지 핵 농축 관련 모든 활동 중단 촉구 및 결의안 이행 거부 시, UN 헌장 제 7조 41항에 의거 제재조치
· '06.09.08	미 재무부, Bank Saderat을 거래금지대상으로 지정
· '06.12.23	UN 안보리, 1차 對 이란 핵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1737호) · 이란의 핵 활동 즉각 중단 재 요구, 11개 단체와 12명의 금융자산 동결 · 모든 UN 회원국의 핵, 미사일 관련 품목, 물질, 기술의 이란 판매 및 이전 금지
· '07.01.09	미 재무부, Bank Sepah를 거래금지대상으로 지정
· '07.03.24	UN 안보리, 2차 對 이란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1747호) · 1차 제재안 대비 자금,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 동결 대상 추가 지정(Bank Sepah 등 10개 기관 및 동 은행장 등 18인) · 모든 국가 및 금융기관은 이란 정부에 대해 인도적 및 개발지원 목적을 제외한 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의 신규 약정 금지 · 이란과의 군사물자 수출입 거래, 관련 기술 및 재정지원 금지
· '07.10.25	미국, 對 이란 추가제재 발표 · 이란 혁명수비대, 3개 국영은행(Bank Melli, Bank Mellat, Bank Saderat)에 대한 미국 내 자산동결 및 미국 금융시스템 으로부터 차단 · 해외금융기관 및 기업들도 제재대상과의 거래 중단 요구
· '08.01.22	UN 안보리, 3차 對 이란 제재 결의안 채택(1803호) · 1-2차 제재안의 연장선상으로 여행금지 및 제한, 자산동결 대상 추가 지정 ·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 및 무인 자동항공수단 관련 품목의

	공급, 판매 또는 이전 금지 · 수출신용 및 이란은행(특히 Bank Melli, Bank Saderat)과의 거래 시 주의 촉구 등 제재수위 강화
· '08.06.16	영국, 對 이란 추가 제재 발표 · Bank Melli를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
· '08.06.23	EU, 對 이란 제재조치 합의 ·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대상 추가지정(이란혁명수비대 장군 등 개인 15명, Bank Melli 등 기관 2개)
· '08.11.10	미국, 금융기관의 이란 관련 자금거래 금지 · 그동안 Bank Melli, Mellat, Sepah, Saderat, EDBI 등 5개 국영은행만이 거래금지대상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든 이란 이란은행들이 미국과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됨.

□ 오바마(Obama) 정권 출범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아짐

- 2008년 UN 안보리의 제 3차 제재 결의, 미국의 對 이란 금융제재 조치 강화, 부시(Bush) 전 대통령의 적대적인 발언 등으로 인해 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어 왔으나, 2009년 1월 출범한 오바마(Obama) 정권은 외교적인 개입과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아진 바 있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 높은 실업률

- 동국의 인구가 연평균 1.3%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가능 인구의 22.3%만이 취업하고 있어 실업문제가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공식적인 실업률은 최근 수년간 12%대를 지속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실업률은 약 20~2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회교혁명 이후

베이비붐으로 인해 30세 미만의 인구가 총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실업률이 매우 심각한 실정임.

- 현재 정부가 국가발전계획을 통해 실업률을 현 12% 수준에서 2010년 7%까지 개선하고자 노력중이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국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Khamenei)를 중심으로 보수, 개혁세력 간 세력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제 8대 총선 결과를 계기로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정책 및 강경 일변도의 대외정책 등을 문제로 보수, 개혁세력 간 주도권 다툼이 지속되고 있으나 심각한 소요사태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 : 6등급 (2007. 6) → 6등급 (2007. 10)
- ICRG : 89/140 (2008. 3) → 72/140 (2009. 2)
- I.I : 92/174(2008. 3) → 89/177 (2008. 9)
- Euromoney : 143/186 (2008. 9) → 151/186 (2009. 3)

- '07. 6월, OECD는 UN 및 미국의 경제제재 지속 및 강화 전망, 석유 부문 투자 부진, ECA 여신에 대한 연체 발생(기술적 연체) 등을 근거로 이란의 국가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미국법에 의해 인수 금지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 개별심사
- 독일 Hermes : 단기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능력 양호, 단 추가제재가 변수

- 최근 이란의 대규모 공공 개발사업 발주 등의 영향으로 외채규모가 소폭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GDP의 성장이 가파르고 D.S.R.도 5%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 동국의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향후 핵문제 협상의 진전방향에 따라 결정될 UN 안보리 및 미국의 제재 수위가 대외지급능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4>

한 · 이란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6	2007	2008	주요 품목
수 출	2,559	3,266	4,343	수송기계,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광물성연료, 석유·정밀화학제품
수 입	5,049	6,482	8,223	
합 계	7,608	9,748	12,566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국교수립 : 1962년 10월 23일(북한과는 1973. 4. 19 수교)
- 주요협정 : 문화협정('74), 경제기술협력협정('75), 무역협정('76), 수산협력관련협정('78), 항공협정('98), 투자보장협정('98)
- 우리나라와의 2008년 교역규모는 126억 달러에 달함.
 - 주요 수출품은 수송기계,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약 43억 달러, 수입은 광물성연료, 석유 및 정밀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약 82억 달러를 기록함.
- 해외직접투자(2008년 12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11건 35,939천 달러

V. 종합의견

- 주요 산유국인 이란은, 2003년 이후 고유가의 영향으로 대외거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장기간의 경제제재와 그에 따른 시설투자 부진 등으로 석유생산량이 당초 계획대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됨.
- 세 차례에 걸친 UN 안보리의 제재와 미국 및 EU의 잇따른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부는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권은 주권 행사라는 당초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핵 활동 지속 의사를 강력히 천명하고 있어, 당분간 국제사회와의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상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국의 신용등급을 C3로 유지하고자 하며, 핵문제 해결 과정 및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효과 등을 예의 주시하여 향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요소 증감 시 수시평가를 통해 신용등급을 재조정코자 함.